

## 넉넉한 인심, 철저한 고객관리로 제품판매 100%

경기도 포천 소재 윤화현 지회장 봉장  
양봉업 유지 위해 밀원 특구 만들어야



▶ 윤화현 경기 지회장과 이삼숙 사모님이 봉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요즘 양봉가들은 봄벌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를 맞고 있다. 꽃들이 점차 만발할수록 양봉가와 벌들도 분주해진다. 벌들의 분주한 모습을 협회보에 담고자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윤화현 경기지회장의 봉장을 찾았다.

봉장을 찾은 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구름한 점 없는 맑은 날이라 양봉농가들이 한창 바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봉장을 찾았을 때 윤화현

지회장은 다른 봉장을 둘러보는 중이었고 이 삼속 사모님은 정신없이 벌들을 돌보고 계셨다.

경기지회장의 봉장은 1천 평 규모로 3군데에 자리하고 있다. 벌통은 150~200개 사이로 유지하는데 아카시아 때는 180개 정도 한다. 여름에는 로얄제리를 사러 오는 사람이 꽤 있어 1년에 100개 남짓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찾아간 봉장은 원래 관광농원으로 계획했었다고 윤화현 지회장은 전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 경관도 휴식을 취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경 등의 문제가 있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지라 선풍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시간 틈틈이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화현 지회장이 양봉을 시작한 계기는 거창하지 않았다. 주 5일 근무가 전무했던 청년 시절, 신앙생활(안식일교회)을 위해서는 일반회사나 부모님이 원하는 공무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운 양봉을 시작했다 한다. 그래도 그 많은 축종 중에 양봉을 선택한 건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양봉을 시작한 곳은 강원도 홍천이었다. 군 제대 후부터 양봉을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그렇게 강원도에서 2년, 용인에서 15년, 그러다 경기도 포천에 자리를 잡은지 14년째가 되어 간다. 서울 근교로 옮겨오게 된 것은 서울 근처가 꿀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지회장은 “확실히 서울 근처가 꿀 소비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포천이 양봉을 하기 좋다고 말한다.

실제로 경기지회장의 봉장은 제품 판매가 많다.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으니 남는 게 없을 정도. 여름엔 로얄제리 생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봉장으로 찾아온다고 한다. 수입 로얄제리는 못 믿겠다며 현지 답사 차원에서 들러 제품도 확인하고 종종 자고도 간다. 부담 없이 와서 된장국에 밥 한그릇 먹고 그렇게 쉬다 가는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은 보란 듯이 관광농원형태로 만들어 놓지 못한 점이 더욱 아쉽다고 한다.

제품판매의 주역은 사모님이다. 푸근한 인상과 넉넉한 인심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한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더 줄 것은 없는지 봉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에서 아마 소비자들은 시골 외갓댁에 온 기분처럼 사가는 제품도 더욱 신뢰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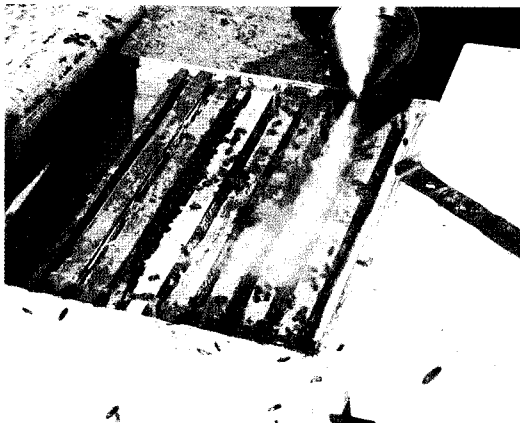
고객관리만 31년.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넉넉한 인심을 바탕으로 한 센스 있는 판매 전략일 것이다. 한번 단골이 되면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고객관리를 한다. 명절은 빼놓지 않고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낼 땐 꿀을 보내 나중에 또 살 수 있도록 유도한다. 꿀이 생산되면 고객들에게 연락을 해서 신선한 꿀을 사갈 수 있도록 한다고.

택배로 보내는 물량이 늘면서 작년부터는 특별 택배 케이스를 제작, 더욱 안전하게 보낸다고 한다. 택배 판매 때는 택배 한 상자에 6개 들이임을 강조하여 더 살 것을 유도하고 꿀의 다양한 활용법(김치를 비롯한 각종 요리법)을 전수하여 꿀 판매를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로얄제리 생산으로 나오는 사양꿀은 설탕섭취가 제한되는 요양원이나 병원, 학교 급식 또는 식당 등에 요리용으로 판매하여 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연간 생산된 아카시아 꿀 30드럼을 비롯해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벚꽃 꿀 등을 판매하여 연 순수익만 8천만원 정도라고 밝히는 이삼숙 사모님은 “인터넷 판매는 하지 않지만 그것 못지않게 잘 팔린다”며 생산량을 100% 소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화현 지회장은 양봉협회 경기지회장으로서의 고민도 많다. 양봉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일정한 고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밀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많은 노력에도 여전히 밀원수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북 칠곡처럼 밀원 특구를 만드는 일이다. 산불이란 약재를 역으로 이용해 밀원수를 심고, 이제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은 칠곡처럼 경기도에도 관광상품과 양봉업 유지를 위한 밀원특구를 계획하는 것이다.



윤화현 지회장은 “경기도 제1청 담당자와 제 2청 국장, 과장, 계장이 함께 칠곡을 답사했고 설명을 들었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칠곡처럼 밀원 특구 계획을 세운 듯 하며 식재는 도에서 관리가 어려운 개인 땅 말고 국가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

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 2청에서는 광릉수목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도록 노력 중인데 만약 광릉수목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면 수목원 안에 양봉 테마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유림, 사유림은 별통을 맘 놓고 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봉산업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질문에 윤화현 지회장은 ‘양봉조합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양봉산업이 위축되고 판매가 감소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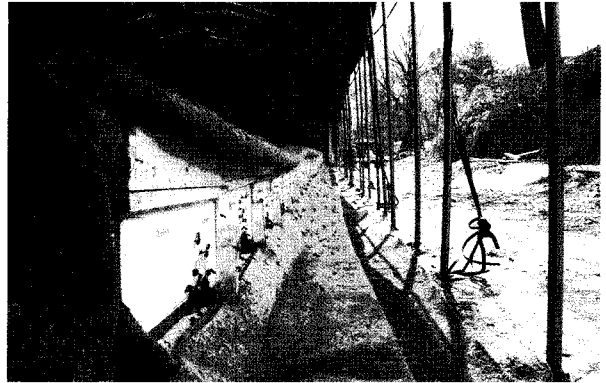
또한 양봉농가가 협회에 많이 가입하도록 하

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지회장은 “각 지역마다 양봉연구회가 있다. 만약 연구회원이 40명이라면 협회 회원은 7~8명 정도로 연구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있는데 분회모임은 자리를 내주지 않아도 연구회 모임은 자리를 내 줄만큼 연계가 잘 되어 있다”며 “연구회를 통해서 농가로 흘러가는 자금만 3억5천만원 정도이어서 협회 보다는 연구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라며 농림부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회장은 “원래 협회는 농가를 대표하여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큰 테두리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협회의 역할이 홍보가 안되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금전적, 물질적) 도움에 밀리고 있다”며 “양봉농가들이 협회 가입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양봉자조금 사업은 더욱 필요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윤 지회장은 “임의 자조금이지만 그래도 금액이 적은 것 같아 조금 아쉽다”며 “그래도 우선



거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거출된 자조금으로 소비홍보를 하여 꿀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촉진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봉장과 협회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윤화현 경기지회장은 요즘 찾아오는 손님들로 더욱 바쁘다. ‘kbs 무한지대 큐’에서도 하루 전날 봉장을 찾아 촬영을 해 갔고 지난 4월 6일 방영됐다. 바쁜 와중에도 기쁘게 손님을 맞는 것은 양봉에 대해 작든 크든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분 좋게 맞아주신 윤화현 지회장님과 이삼숙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모든 양봉농가에 벌꿀 풍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

